

江原道支部



閔庚秀 지부장

지부장 인사

본 지부순례단을 통하여 전국 회원 여러분과 건축사지 독자 여러분께 강원 지부를 소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지부 창설이래 20여년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회원의 권익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 이룩해 놓으신 선배회원님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건축 설계 하나 하나가 작품과 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부실한 건축물을 자초하는 설계비나 감리비의 할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으며 경제가 발전하므로 건축주의 생활향상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도시 공간의 미화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분투와 새로운 구상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굳건히 하여 조형 창작예술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가일층 노력하여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을 다해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건축사로서의 지위 향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지난날에도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울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 드리며 꾸준한 노력으로 건축문화 발전에 앞장서 길이 후손에게 남길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해 주시고 선배, 동료 회원님들의 끊임 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부소개

1964년 12월 16일자 법률 제1536호로 제정 공포된 건축사법에 의거 건설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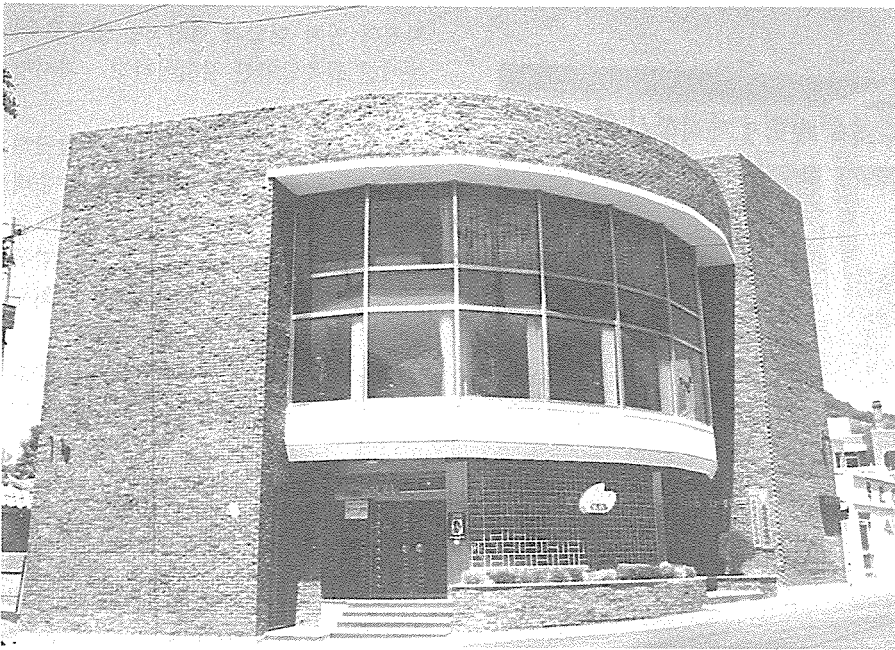
관의 면허를 받고 지방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건축사를 정회원으로 하여 건축사의 품위보전, 권익옹호,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강원도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趙奎植의 11명이 1965년 9월 강릉에서 창립 준비 총회를 갖고 지부 창립 제반 준비를 완료 하였다.

동년 11월 13일 도내 총회원 13명중 발기인 대표 趙奎植의 10명이 참석 지부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지부장에 趙奎植(작고) 씨 선출을 비롯하여 임원진 구성과 지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동년 12월 3일 본협회 등기 완료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에 등기를 필하고 춘천시 조양동 101 번지에서 지부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 후 1967년 11월 30일 춘천시 중앙로 1가 84번지로 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1969년 2월 1일 춘천시 조양동 98번지로 이전등 지부장이 개선되던 지부장 사무소를 따라 이전을 거듭하던 것을 1973년 4월 5일 춘천시 중앙로 1가 63번지로 독립 이전하였으며 1978년 1월 15일 춘천시 조양동 37-19번지로 이전 1983년 2월 16일 현 위치인 춘천시 옥천동 39-5번지에 강원도 건축사회관을 건립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현재 도내 6개분소(원주, 강릉, 속초, 태백, 삼척, 영월)를 설치 회원 업무에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

강원도지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회원이 산재해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따라 회원수가 증가 되었으나 특히 70년대에 접



강원도 지부회관 전경

어 들면서 회원수는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가 그 명맥유지에 급급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업무수탁을 위한 보수액의 과다한 할인 경쟁으로 회원 상호간 갈등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 또는 시공업자의 횡포에서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로 인하여 부당 행정처분을 받아 사무소의 운영난은 더욱 압박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일대 시련기에서 헤어나고 격동하는 사회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동반태세를 갖추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회원의 우의와 신의로써 상호 이해하고 참여의식을 높이며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복지회가 구성되었다. 복지회 운영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수시로 대두되었으나 회원의 협조와 지혜를 모아 보완 개선해 지역회원간의 신뢰회

복은 물론 건축사 업무질서 확립과 주변 의 비위사무소 정비와 회원의 지위 향상 에 기여하였으며 계속 회원의 노후대책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상호 신뢰와 협동으로 공존 공영을 기하는 한편 회원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할수 있는 체육대회, 산업시찰등 단합행사를 통하여 이해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경조사에 전회원의 참석을 유도하여 화합 단결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회원의 경제력이 향상되었으며 따라서 일반 사회에서 건축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므로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전문 지식인으로서 건축에 대한 주인의식을 재확립 하였다.

강원도 지부는 타지부에 비하여 많지

않은 회원이 원거리에 분포되어 회원 결속에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사업 지원에 성원을 아끼지 않아왔다.

그 대표적 예로 1984년 8월 8일 회원 36명이 2천만원의 체육성금을 모아 강원도 지사에게 전달 강원체육 진흥에 솔선하여 앞장섰으며 수시 발생하는 재해의연금, 일선장병위문 및 방위성금, 상이용사 자활촌 위문 및 원호성금, 불우이웃돕기, 새마을사업지원, 기능경기대회 협찬, 각종 사회사업 지원금을 전달하였고 또한 취락구조 개선 사업과 소도읍 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주민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건축설계비를 할인 봉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으로써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공헌하였으며 아울러 지부 이미지를 부각시켜 건축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거듭되면서 지부의 숙원이던 회관건립을 위하여 1982년 6월 26일 강원도 건축사복지회 총회에서 회관건립 사업계획 승인과 회관건립 추진위원을 선출하여 동년 7월 31일 춘천시 옥천동 39-5 대지 60평을 2천5백만원에 매입하고 당시 지부장이던 李國男 회원께서 회관건립 예산을 절감키 위하여 회관설계 및 감리를 무료로 제공,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하였으며 동년 10월 11일 춘천시장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수 1983년 3월 5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83.57㎡ 총공사비 6천5백만원을 투입 강원도 건축사의 전당을 완공함으로써 회원의 숙원이던 회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회관이 완공되기까지는 적은



자율정화확립결의대회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지 부 장	閔 庚 秀	대아건축설계사무소
간 사	趙 貞 鎬	현대건축설계사무소
"	李 國 男	국남건축사 사무소
"	崔 柄 郁	공간건축설계사무소
감 사	朴 世 振	박건축설계사무소
"	李 贊 浩	대림건축설계사무소

역대 지 부 장

구 분	성 명	사무소명
초 대	趙 奎 植	작고
제 2 대	孫 駿 燮	강원건축설계사무소
제 3 대	孫 駿 燮	"
제 4 대	趙 貞 鎬	현대건축설계사무소
제 5 대	李 相 哲	작고
제 6 대	趙 奎 植	"
제 7 대	李 相 哲	"
제 8 대	李 相 哲	"
제 9 대	李 國 男	국남건축사사무소
제 10 대	李 國 男	"
제 11 대	李 國 男	"

수의 회원과 취약적인 지역조건하에서도 회원의 일치 단합과 헌신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괄목할만한 사업이라고 과시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의 추세가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보급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생활의 향상과 건축활동의 꾸준한 증가 등은 국가정책 및 회원 업무활동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주택과 건축물은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이자 사회안정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속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생활상을 담은 문화예술품으로서 후세에 전승될 유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고우하고 독특한 전통미를 살리면서 생활에 편리하고 문화예술적인 주택과 건축물을 보유하고 창조하면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건축사와 건축분야 종사자의 막중한 책무라 하겠다. 그리고 건축에는 수많은 각종 법규와 제도 및 시책, 행정절차 등이 복잡 다단하여 이를 이해 숙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건축행정과 도시 및 농어촌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처리절차, 기준, 관련법규, 지침, 유의사항, 조례, 질의, 응답사례등 실무 위주의 내용을 간편하고 알기 쉽게 편집 "주택건축업무편람" 책 400부(3,850,000원)를 발행 도내 각시군에서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 및 회원에게 배포하여 100년 대계의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타 지부의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1.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 회원업무와 노후대책에 대한 사업
 - 부당한 업무처리 방지로 회원보호

연도별 회원수 및 설계도서 신고현황

연도별	회원수	도서신고현황
1965	12	
1966	13	
1967	14	
1968	17	
1969	19	
1970	22	182, 142㎡
1971	26	184, 929
1972	24	190, 780
1973	25	259, 062
1974	26	285, 153
1975	28	384, 341
1976	31	350, 773
1977	28	583, 875
1978	32	875, 819
1979	31	1, 129, 747
1980	39	1, 000, 397
1981	40	1, 012, 275
1982	41	1, 349, 032
1983	36	1, 685, 645
1984	35	1, 325, 645

- 복지회를 활성화하여 회원 상호협조와 경제력 향상
- 2. 회원 상호 친목도모를 위하여
 -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단합행사 개최
 - 관계 기관과 간담회 개최로 건전한 건축풍토 조성
 - 지역 복지회 운영으로 상호 유대 강화
- 3. 건축사 업무 개선을 위하여
 - 회원 업무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제공 업무활동 지원
 - 건축관계 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연구 건의
 - 건축사 업무 및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연구
- 4.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 전국 회원 작품 전시회 도내 유치
 - 우수 건축자재 전시회 관람 권장
 - 보조원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취급 요령 교육
 -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 5. 지도 계몽 사업을 통하여
 - 회원 사무소 운영 실태 지도
 - 회원 업무에 관한 지도 계몽
- 6. 감사 활동을 통하여
 - 지부 및 분소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사
 - 사정업무와 관련된 지도 및 특별감사
- 7. 사회정화 운동으로
 - 정화추진 위원회를 통하여 의식개혁 운동 전개
 - 자체 정화추진 위원회 활성화 및 강화
 - 직업 윤리관 확립과 보수요율 준수
 - 홍보 및 교육활동 전개
- 8. 새마을 운동으로
 - 불우회원 및 이웃돕기 운동 전개
 - 자연보호 및 농촌일손돕기 운동 전개
 - 건축행정 상담실 운영으로 대민 봉사
 - 주거환경 정비 협조
- 9. 홍보 활동으로
 - 신문 및 방송에 회원업무 소개 홍보

